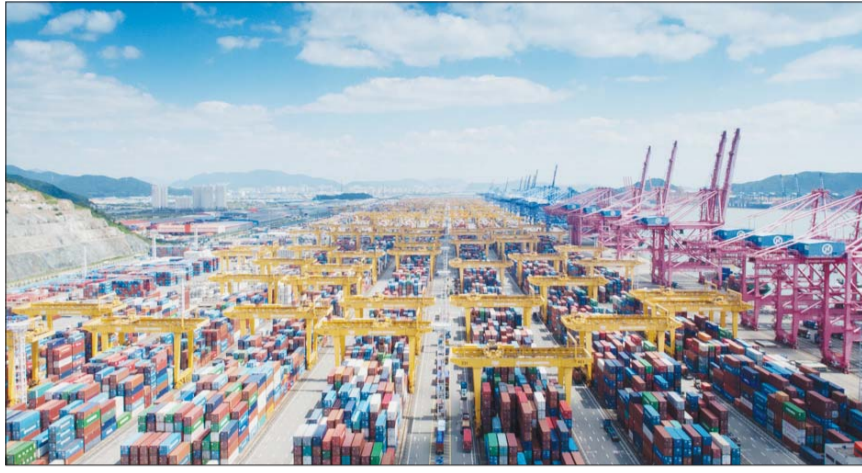


부산시, 수출 27.9% '굉충'... 유럽·美서 선박·신발 회복세

한국무역협회 '1월 부산무역동향' 부산지역 수출 3.7억달러 집계
日 감소... 中·인니서 감소분 상쇄



부산신항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지역 수출이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선박과 조선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함께 장기간 침체됐던 신발 수출까지 반등하면서 전국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부산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역 제조업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부산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지역 수출은 3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이 9.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부산의 수출 회복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수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3%로 확대되며 지

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조선기자재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시장 수출이 확대되면서 선박 부문 수출은 지난해보다 298.5%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부산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간 부진을 겪었던 신발 부문도

중국과 베트남 현지공장 수출 증가에 힘입어 9.2%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섬유화학 분야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탤다.

미국 경기 회복 움직임도 부산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미 수출은 신발과 주단조품, 모터·회전기, 정밀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품목별 증가율은 신발 73.2%, 주단조품

129.5%, 모터·회전기 124.5%, 정밀화학제품 34.5%로 집계돼 전반적인 제조업 수출 회복 흐름을 보여줬다.

반면 일본 수출은 감소했다. 대일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이 현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14.3% 줄었다. 다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은 각각 12.3%, 20.6% 증가해 감소분 일부를 상쇄했다. 시장 다변화가 부산 수출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입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부산지역 수입은 소비재 수입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한 3억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부산 수출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서울국제관광전' 부스 운영

광양시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6)'에 참가해 전라남도 공동 홍보관 내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을 기반으로 한 자연 관광자원과 섬진강별빛스카이, 배알도별빛야영장, 남파랑길 광양 코스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야간 경관과 지역 미식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도 함께 소개한다.

하반기 개장을 앞둔 구부산 체험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와 단체관광, 운동주 테마관광, 미션투어 등 관광 인센티브 제도도 알릴 예정이다. /광양(전남)=양수영 기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홍도' 공연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극공작소 마방진의 대표작 '홍도'를 내달 5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창단 20주년을 맞은 극공작소 마방진의 기념작으로 배우 예지원이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우수 공연 콘텐츠의 지역 유통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대구시

'참소주' 몽드셀렉션 수상

금북주는 참소주가 세계적인 국제 주류 품평회인 올해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64년 전통의 세계적인 국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주류 전문가와 소믈리에들이 맛과 향, 품질, 디자인,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글로벌 품평회다.

이번 심사에서 참소주는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

환경의날 기념 환경페스타

포항시는 오는 6월 5일 철길숲 오코광장 일원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Educ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녹색전환(Transformation), 생활 속 실천(Action)을 주제로 시민 참여형 축제와 체험형 교육을 결합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6월의 크리스마스-지구에게 전하는 가장 쿨(Cool)한 선물, 우리의 실천'이다.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과 기후행동 도시선언이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전환(GX) 실천트리 퍼포먼스'도 열린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준비

오는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 운영
총사업비 774억 투입... 98개 병상
감염병 신속진단 등 방역 거점 담당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병원 조감도. /뉴시스

조선대병원에 건립 중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내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어 감염병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2024년 6월 착공한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확산 이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권역별 전담 의료 기관이다.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중증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것은 물론 환자 이송과 대응 인력 교육을 총괄하는 방역 거점 기능을 담당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총사업비 774억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병상은 모두 98개이며 이 가운데 58개는 음압병상으로 운영된다. 음압 수술실도 함께 구축해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상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병상 운영 체계를 전환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전용 CT실과 검사시설을 비롯해 생물안전등급 3등급(BL3) 연구실,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시설도 들어선다.

'섬섬여수옥수수' 드론방제로 경쟁력 강화

4.1ha 규모 재배단지 방제 작업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섬섬여수옥수수'의 품질 향상과 친환경 방제 확대를 위해 드론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는 화양면 일원 4.1ha 규모의 '섬섬여수 친환경옥수수 작목반' 재배단지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는 옥수수 생육 시기와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지난 22일 1차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방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드론 방제는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수시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2022년 친환경 옥수수 드론 방제 지원 사업을 도입한 이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섬섬여수 옥수수'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농업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수 옥수수가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화양면민회관 일원에서는 옥수수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공연예술 협업·유통 네트워크 연결

'KoCACA 아트페스티벌' 열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6 KoCACA아트페스티벌 in 부산'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예술 유통과 협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영화의전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공연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아트마켓형 축제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를 비롯해 공연장 장비업체 관계자 등 430여 개 기관·단체에서 약 2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 슬로건은 'Together in ARTS'다.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비롯해 KoCACA 포럼, 문예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프린지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며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기후변화 재난 종합대책 추진

9월까지 5대 분야 21개 과제 실시

김해시가 여름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는 하절기 폭염·집중호우·감염병 등 하절기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9월까지 기후변화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8개 부서 협업으로 시민 건강관리, 관광휴양지 관리, 재해재난 대비 안전관리 등 5대 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폭염대책은 관내 무더위 쉼터(실내 434개소, 야외 39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공원·전통시장 쿨링포그 분사 등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주차·쓰레기 민원에 대해 교통지도 단속반, 쓰레기처리 상황반, 기동수거반을 운영한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급경사지와 물놀이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농업 분야는 시설하우스와 농작물 재배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응급복구 조치를 병행한다.

저소득층 안전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